

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4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1~3] 다음은 학생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생회는 매 학기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사용한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리 부서에서 통계를 낼 때 보니 뒤 번호의 문항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학생 2: 모든 선택형 문항에 같은 번호로 답하거나 서술형 문항에 장난스럽게 응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설문지에 설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명이다 보니 학생들이 성의 없이 설문에 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3: 저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기존의 설문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설문지 문항 수를 줄인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설문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이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설문 목적과 의의를 밝히는 문구를 설문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익명보다는 실명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학생 3: 저는 문항을 각 활동별로 묶어서 구성하되 먼저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한 학생만 해당 활동의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시된 방안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선택형 문항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항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존의 질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3: 설문지에 설문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기재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학생 1: 실명 기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단 ①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해 보고 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토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 ~ C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군.
- ② A에서 '학생 3'은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군.
- ③ B에서 '학생 1'은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B에서 '학생 2'는 설문지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C에서 '학생 2'는 다른 학생이 대안으로 제시한 설문지 형식에 동의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군.

2.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여 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 ④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며 후속 토의를 안내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국어 영역

3. 다음은 ㉠의 일부이다. 위 토의를 바탕으로 이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회 활동 만족도 조사 설문지

다음은 학생회가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인적 사항
()학년 ()반 (남 / 여)

4.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참여했습니까?
① 예 (4-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요 (5번으로 가십시오.)

4-1.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학생회 주관 수요 콘서트에 참여했습니까?

- ① 1번 항목에 실명 기재란이 없는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학생 2’와 ‘학생 3’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안내 문구에 설문 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 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서술형 문항 수를 늘려야겠군.
- ④ 4번 항목에서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안내한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4-2번의 질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 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묻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겠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입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마크를 본 적이 있나요? 마크에 쓰여 있는 ‘HACCP’는 ‘해썹’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냉동식품, 병과류 등을 비롯한 7개 품목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이나 업소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완료한 업체에 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해썹 인증을 해 줍니다. 한 번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니 해썹 마크가 있는 제품과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해썹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그 의미나 의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해썹 적용 품목이나 업소가 확대될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먹거리의 과수꾼이라 할 수 있는 해썹 마크,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5.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7개 품목군 외에 확대 적용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③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④ 인증을 받기 위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 ⑤ 재인증을 위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 절차 와 동일한가요?

국어 영역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스포일러 문제를 비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학생의 초고]

자신이 보려던 영화의 결말을 누군가 말해 버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 방송,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시청자,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한다. SNS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에는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나 결말을 알지 못할 때 긴장감과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접하게 되면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오디션이나 경연 대회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포일러를 당하면 시청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A])

누리꾼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제목을 꾸며 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포일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는 아닌지 한번 더 의심하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적인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포일러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우리들은 문화 콘텐츠의 향유자로서 스포일러의 폐해에 관심을 갖고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곡된 정보를 예고편에 의도적으로 넣어 스포일러를 하기도 한다. 이유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았을 때 예상이 빗나가면 더욱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 ② 스포일러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시청률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스포일러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는 달콤한 미끼가 되기도 한다.
- ③ 스포일러가 홍보 역할을 하여 오히려 시청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④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⑤ 시청률의 하락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청자들은 스포일러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신문 기사

영화 전문 예매 사이트 ○○가 2,322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스포일러에 대한 ㉠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3%였고, '스포일러도 리뷰이므로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27%였다. 단, '상관없다'고 응답한 누리꾼도 ㉡ 스포일러 가능성 여부를 글의 제목에 미리 밝혀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 전문가 인터뷰

㉢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른 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의 결과를 첫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의 의견을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추가하여 제시한다.
- ③ ㉢의 내용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다.
- ④ ㉣의 사실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 ⑤ ㉤의 정보를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의도적인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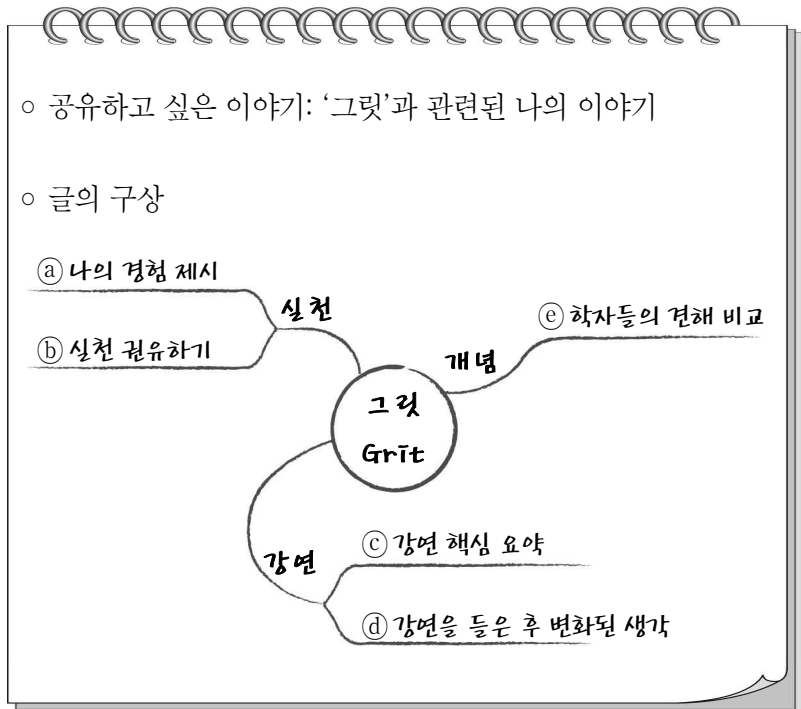
국어 영역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자.

[작문 일지]



[초고]

작년 겨울, 천재들만 받는다는 맥아더 펠로상의 수상자 ‘엔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인 ㉠ 그릿(Grit)이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릿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짧은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후 나는 ㉡ 그릿에게 빠져들었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으며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막연한 충고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 그릿의 효과와 그릿 향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의 끈기에 ㉢ 주목시키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그러나 나는 포기하려 했던 기타 연습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소소한 성취감도 느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까지 했다.

베토벤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음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다. 베토벤이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릿의 결정체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 떠올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

9. ‘작문 일지’에 기록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그릿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꿔야겠어.
- ②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릿에’로 수정해야겠어.
- ③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교체해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그릿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ㄷ], [ㄷʝ]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ʝ]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ㄷ]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ㄷ]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ㄷʝ]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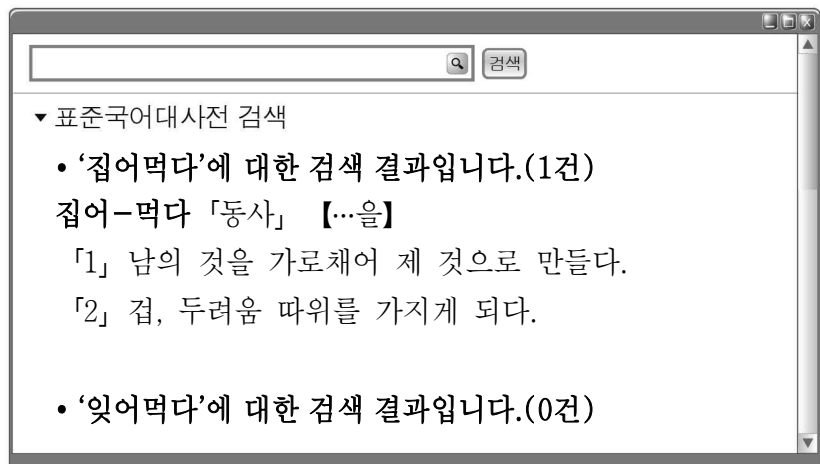
국어 영역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 유형 | 특징 |
|-------------|---|
| 본용언 + 본용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띄어 쓴다. |
| 본용언 + 보조 용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
| 합성 동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드시 붙여 쓴다. |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 보기 >

- 운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 ~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 보기 >

-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 | |
|---|-----|-----|-----|
| | ㉠ | ㉡ | ㉢ |
| ① | 그녀가 | 제자가 | 그가 |
| ② | 그녀가 | 그가 | 제자가 |
| ③ | 그가 | 그녀가 | 제자가 |
| ④ | 그가 | 제자가 | 그녀가 |
| ⑤ | 제자가 | 그녀가 | 그가 |

국어 영역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습-, -습-, -습-’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 | 주체 높임 | | 객체 높임 | 상대 높임 |
|---|-------|-------|-------|-------|
| | 직접 높임 | 간접 높임 | | |
| ① | × | ○ | ○ | 높임 |
| ② | × | ○ | × | 낮춤 |
| ③ | ○ | × | ○ | 높임 |
| ④ | × | ○ | × | 낮춤 |
| ⑤ | ○ | × | ○ | 낮춤 |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븐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 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미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④②③②②
②③④⑤①
④③①④①

1.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발화 특성 분석하기

B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 2의 두 번째 발언에서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 이용이라는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설문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을 뿐,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을 뿐,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학생 1의 두 번째 발언에서 전체 설문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에서 설문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다른 학생의 대안에 일부 동의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의 '먼저 기존 설문지~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의 '그렇다면~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발언의 '지금부터는~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를 통해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며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토의 내용 파악하기

학생 1은 두 번째 발언에서 서술형 문항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제시된 설문지에는 실명기재란이 없는데,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에서 실명기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 ② 학생 2의 두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에서 설문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안내 문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시된 설문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 ④ 제시된 설문지에는 4번 문항과 4-1번 문항으로 단계적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과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에서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 ⑤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에서 기존 설문지의 서술형 문항은 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질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시된 설문지의 4-2번 문항은 구체적으로 응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 대상인 해썹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에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5문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와 같은 반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라는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5문단에서 '먹거리의 파수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3문단의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에서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드러나 있으므로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3문단에 7개 의무 적용 품목군 중 일부만 제시되었을 뿐 확대 적용 품목은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위해 요소에 대해 언급했을 뿐,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⑤ 4문단에 3년에 한 번씩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 파악하기

첫째 문단의 '영화, 방송, 소설 등의~스포일러라고 한다.'에서 스포일러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스포일러가~의견도 있다.'는 앞 문장의 반론에 해당하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대부분이다.'는 재반론에 해당하며, '빙산의 일각'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① '프로그램 제작자가~느끼기 때문이다.'는 반론에 해당하나, 재반론이 없고 비유적 표현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달콤한 미끼'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잘못된~마땅하다.'는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지만,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㉞은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설문 조사 결과 73%의 누리꾼이 스포일러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첫째 문단에 제시된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의 근거로 적절하다.
- ② 자신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글의 제목에 미리 제시해 준다면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이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다. ⑤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의도적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스포일러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주요 전략 파악하기

글의 구상에서 밝힌 그릇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비교'는 초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의 '나는 포기하려 했던~즐거움까지 했다.'에 나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3문단의 '여러분도 무엇인가~좋겠다.'에서 실천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1문단의 '그녀가 강조한 것은~역설했다.'를 통해 강연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그런데 강연을 통해~깨달았다.'고 하여 강연 이후 생각이 변화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그녀가 강조한 것은'과의 호응이 적절하므로 '그렇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꾸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조사로 '에'라는 부사격 조사로 수정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③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④ 그릇에 대해 깨닫고 이를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를 인과의 접속어 '그래서'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⑤ '떠올리고'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을 첨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 '물히고'에서 '물-'은 받침이 'ㄷ'인 형태소이고, '-히-'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보기 1>에 근거할 때, '물-'의 'ㄷ'이 '-히-'의 'ㅎ'과 결합하여 [트]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츠]으로 교체되어 [무치고]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

- ① ㉠은 '불-'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불-'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고, '날'의 받침 'ㄷ'은 [츠]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에서 '이불'은 실질 형태소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띄어쓰기 탐구하기

㉢에 사용된 '집어먹다'는 국어사전에 '집어먹다 1'로 등재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고,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할 경우 두 용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나)를 참고할 때 ㉠은 국어사전에 '집어먹다 2'로 등재된 단어이므로 합성 동사이다. (가)에 따르면 합성 동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② ㉡은 뒤의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 + 본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⑤ ㉥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에 용언 ‘먹었다’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가)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알려 줬다’의 주어는 ‘그녀가’이다. 그리고 명사절인 ‘제자가 상을 받았음’에서 ‘받았음’의 주어는 ‘제자가’이다. 또 관형절인 ‘그가 아끼던’에서 ‘아끼던’의 주어는 ‘그가’이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㉞은 서술의 객체인 ‘聖宗(성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한 어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문장의 주어인 ‘聖孫(성손)’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에 의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는 동작의 주체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각각 선어말 어미 ‘-시-’와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 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에서는 ‘아프셔서’의 ‘-시-’를 통해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즉 ‘허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다. 또 ‘왔습니다’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뵙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